지역업체 계약 우수사례 실적 포상 지시

정헌율 시장, 특화된 도시브랜드 강조 '빛의 도시, 익산' 구상안 내비쳐

10일 간의 해외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 정헌율 익산시장이 10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역업체 계약 우수사례를 평가해 포상하라고 지시했다.

정 시장은 "지역업체 계약 우수사례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는데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평가해 적극 추진한 부서에 대해 연말에 포상하라"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정헌율 시장은 특화된 도시브랜드를 강조하며 익산을 '빛의 도시'로 만들어보자는 구상안을 내비쳤다.

정 시장은 "뒤늦게 다른 도시를 따라 해서는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며 "현재 원도심에는 '빛'을 주제로 '문화이리로 특화거리' 조성에 이어 LED 조명 등 경관조형물 설치로 환하고 다채로운 빛을 연출하고 있고 백제왕궁 야간상설공연이 매회 성황리에 치러지면서 새로운 야간명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재생사업 등 추진에 빛의 요소를 반영해 점차적으로 '빛의 도시'라는 익산만의 특화된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간다면 익산시가 밤에 오면 볼거리가 많은 도시, 야간에 찾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구상안을 밝혔다.

이 밖에도 정 시장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 홍보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부재 시 애써준 간부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며 추경예산이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제2기 지방생활보장위 출범

국민기초수급자 연간조사계획 등 17가지 심의 · 의결

골고루 누리는 행복도시 군산시가 10일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의 권리구제방안을 위한 제2기 군산시 지방생활보장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위원회는 강임준 시장을 위원장으로 사회단체, 학교, 기관 대표자, 관계공무원 등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들은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 자활기금 운영방안, 국민기초수급자 연간조사계획, 보장비용 징수 및 제외심의 대상자 확정 등 17가지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또 가족관계 단절로 인해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해체된 가구의 구제사항도 의결한다.

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와 함께 많은 저소득층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읍면동 맞춤형 복지 지원서비스와 연계해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임준 시장은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및 상생방안을 만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비브리오패혈증균 주의보

군산시보건소 홍보활동

군산시보건소(소장 전형태)가 남해 및 서해, 동해 일부 지역 환경검체(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됨에 따라 예방을 위해 시민 홍보활동에 나섰다.

시는 비브리오 패혈증이 간질환자, 알콜중독자,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여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예방책으로 어패류를 충분히 익혀 먹어야하며, 어패류는 가급적 5℃이하로 저온보관, 85℃이상 가열처리하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은 후 섭취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소독후 사용하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해수온도가 높은 6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10월까지 어패류 섭취 또는 피부에 상처로 바닷물이 접촉되면 감염되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에 주의와 수칙을 준수해야하고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의료기관을 찾아 신속히 진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원광대, 온 · 오프라인 교류 산업체 전문가와 과제 수행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는 앞으로 4개월에 걸쳐 산업체 전문가와 온·오프라인 교류를 통해 공동과제를 수행하는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대학혁신사업단이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산업체 전문가 1명, 학과 지도교수 1명, 학생 3~4명이 멘토링 팀을 구성하고, 장기 멘토링과 함께 전공관련 공동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혁신사업단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지도교수 및 산업체 전문가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교내 WM관에서 프로그램 시작을 위한 '동행-산학 Mentoring Start-up 행사'를 열었다.

특히, 산업체 전문가 멘토로 활동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고문주 책임연구원 등 33명에게 멘토 위촉장을 수여하고, 학생-지도교수-산업체 전문가 간의 멘토링 협약체결과 함께 향후 활동계획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도 이루어졌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예비)사회적기업 세움아카데미

기업 성공 노하우 소개, 비즈니스 컨설팅 제공

10여개 신규 기업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오는 18일부터 사흘 동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아카데미(세움아카데미)를 개강한다.

이번 교육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예정인 기업 대표자와 실무자, 사회적기업 희망 (예비)창업자,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등 약 30여명 정도 참여한다.

교육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이현민 이사의 '사회적경제의이해',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민음 팀장이 '사회적기업의 제도 및 정책'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며 지역 사회적 기업인 (유)케어팜, (주)토마토패션, (유)사각사각, (유)아이힐링행복센터 대표들이 참여해 생생한 기업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소개한다.

또한 교육 참여 우수 기업에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수익구조, 수익모델 설계 등의 컨설팅도 실시된다.

이를 토대로 익산시는 업체들이 오는 7월부터 실시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교육 및 컨설팅에 참여를 원하는 사회적 기업 희망(예비)창업자 또는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익산 시민들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063-859-3406) 에 전화접수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익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올해 세움아카데미를 통해 10여개 신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지역에는 사회적기업 12곳, (예비)사회적기업 26곳 등 총 38곳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진흥청이 경로당 노인의 의식주 생활개선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채소 기르며 세대 간 교감하다

군산시농기센터, 생활개선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와 농촌진흥청이 정순진 농촌진흥청 박사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경로당 노인의 의식주 생활개선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농업의 가치와 도농 간의 이해, 상생의 기회를 제공할 도시농업의 일환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20회에 걸쳐서 공동주택 텃밭정원 활동으로 진행된다.

특히 65세 실버세대 20여명에게 텃밭 활동으로 정서적 안정과 직접 길러서 먹고 즐김으로 건강유지, 나눔 실천, 자연과 타인에 대한 감사를 생활화하도록 했다.

실제로 지난 10일 미룡동 소재 실버세대와 어린이집 원생 등 50여명이 다함께 채소를 기르고 가꾸며 세대 간의 교감과 자연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키우는 시간을 보냈다.

시는 도시농업을 이끌어 갈 3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 실버텃밭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시킴으로서 도시원예 체험활동 확대와 도시농업의 기반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공동주택 텃밭정원의 활동을 통해 일상의 건강한 습관을 체득하고 습관화할 수 있도록 실버세대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취약계층 여름철 홈 방역 서비스 지원

익산시, 240가구 10월 말까지 방역키로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오는 11일부터 지역의 취약계층 240가구와 아동복지센터 29곳에 대한 여름철 홈 방역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 대상 가구는 보건사업과 방문보건사업팀이 열약한 주거시설과 비위생적인 환경으로부터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많은 취약계층 36가구를 선정했고 직접 방문하지 않는 204가구에게는 400여개의 방역약품을 지급했다.

홈 방역 서비스는 전문적인 방역기술력과 다양한 노하우를 지닌 방역 전문 업체(2개소)가 가정 및 센터를 직접 방문해 실내·외 살충 및 살균 소독을 실시하는 서비스로 가정의 환경과 위생을 고려해 오는 10월말까지 월 1회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해 주거 환경을 개선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홈 방역 서비스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을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환으로부터 보호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만들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인천 기자